모세의 막춤과 바로의 발레

(출7:1~13)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 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2.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3.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4.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5.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6.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7.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팔십 세였고 아론은 팔십삼 세였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모세의 막춤과 바로의 발레>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모세의 막춤과 바로의 발레'

전 세계적으로 현대무용사진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을 얻은 미국의 사진작가인 조던 매터(Jordan Matter)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3-2014년에 걸쳐서 두 번 전시회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이 분이 낸 사진집 중에 "우리 삶이 춤이 된다면"이라는 제목의 사진집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Dancers among us(우리들 가운데 있는 댄서들)"이라는 제목인데 번역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사진집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영감을 불어넣고, 타임지에서도 2012년인가 베스트셀러로 선정이 되어서 소개되기도 했던 책입니다.

이 조던 매터의 전체 작품을 관통하고 있는 영감(inspiration)이 있는데, 이 영감을 받은 두 개의 source가 있는데, 첫 번째가 어린 아들입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에 시내를 데리고 나갔는데 사람들이 출근하느라고 굉장히 바쁘게 걷는 것을 보게 되고, 몰려서 신호등에 서 있다가 우르르 건너기도 하고, 지하철에서 올라오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아들이 천진난만하게 사람들이 춤을 춘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 어린 아이의 눈에는 손을 바쁘게 앞뒤로 저으며 급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춤을 추는 것 같이 보였다는 이 말에서 영감을 얻었고, 또 다른 source는 20세기 사진미학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앙리 까르티에 브레송(Henri Cartier Bresson)이 "나는 삶의 결정적인 순간들을 찍으려고 했으나 삶의 모든 순간이 결정적인 순간이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 속에서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인생이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표현되는 순간이 결정적인 순간 아니겠습니까?
감격하고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 같은 것을 찾아 활동을 한 자신의 작품 활동의 기간을 결산하면서 느꼈던 것은, 축구에서 90분이 지나도 0:0이었다가 연장전에서 골 하나 넣어서 우승컵을 쥐는 그런 순간만이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순간이 다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가치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사람 목숨이 최고의 가치이고, 살아있음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걷는 것이고, 의자에 우두커니 앉아서 창밖으로 먼 산을 바라보고 있어도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해석입니다만, 브레송이 모든 인생의 순간을 다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음과 존재함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이고, 인간이 살아서 취하는 모든 행동을 결정적인 순간으로 보는데, 이것이 조던 매터에게 또 다른 영감의 source가 되었습니다.
천진난만한 아들이 직장을 향해 가고 있는 출근시간의 사람들의 동작을 춤으로 본 것과, 브레송이 모든 인생의 순간들이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하는 이 철학화 된 경험의 엑기스를 통합시켜서 작품 활동에 임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아들이 춤이라고 보았던 직장인들이 출근하는 모습이 살아있음이라는 최고의 가치가 표현되고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고, 너무 평범하고 일상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행동이지만 그 순간에서 최고의 의미를 찾아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용수를 데리고 와서 사람들이 바쁘게 출근하는 그 거리에서 눈에 확 띄는 발레의 한 동작을 취하게 합니다. 대부분이 발레의 점프 동작인데 그것을 수백 번 반복하게 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공중에 떠있는 상태의 사진을 포착합니다. 사람들이 직장을 향해서 오고 가고 있는데 공중에 떠 있는 발레리나의 사진이 찍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뜻하는 것은, 매일 같이 평범하게 직장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평범하고 간과해도 되는 모습이 아니라, 무용수의 모습이 공중에서 찍히는 것처럼 춤이고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용수 한 사람의 특별한 춤 동작을 보여줌으로써 그 배경이 되는 모든 사람들의 동작을 특별한 것으로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어두운 상가에서 빨간 우비를 입은 여자가 빨간 우산을 들고 마찬가지로 발레의 점프 동작을 취하는 것을 찍습니다. 비가 올 때에 우산을 쓰고 상가를 걷는다는 평범한 동작이 평범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던 매터의 영감에 의하면, 삶 전체가 다 춤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일상적이고 평범했던 모든 삶의 동작들이 무용수 한 사람의 특별한 춤사위가 더해지면서 그 춤사위와 같은 춤이고 특별하다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작품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이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발전하는 것이지요.

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단에 맞추거나 흥에 겨워서 팔다리와 몸을 율동적으로 움직여 뛰노는 동작이라고 했습니다. 조던 매터는 장단에 맞추거나 흥에 겹다는 말을 빼버리고, 팔 다리와 몸을 움직이기만 해도 다 춤이라고 합니다. 천진난만한 어린이의 눈으로 보았던 모습을 춤의 범위 안으로 끌어들이므로 춤의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져 버립니다.
밥을 먹는 것도 춤입니다. 밥을 먹는 모습을 필름으로 찍어서 속도를 빠르게 돌린다면 그 모습이 춤처럼 보일 것이고, 아주 느리게 한다면 그것도 느린 동작으로 움직이는 춤이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 근무해도 춤이고, 커피를 마시면서 카페에 앉아 대화를 해도 춤이고, 다 춤이 됩니다.
이때에 발레를 위시해서 우리에게 춤으로 소개되어 분류 될 수 있는 것이 한 category를 이루고, 막춤이 다른 한 category로 구분됩니다.
발레는 팔 동작 만해도 손을 배꼽 아래로 모았다가 올리기도 하고 뻗기도 하는 기본동작이 4개이고, 다리의 기본동작은 5개로 총 40여개의 기본동작이 있는데, 이 기본동작을 피나는 노력을 통해 몸에 익혀서 내가 완전히 내 몸을 통제하고 조종할 수 있을 때까지 해서, 음악이 들리면 음악에 맞추어 표현해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춤은 이렇게 몸에 익히고 몸을 통제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은, 통제 되고 익숙한 기본동작을 음악에 맞추어 표현하는 발레와는 달리, 막춤이라는 것은 음악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음악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움직입니다. 그 음악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흥겹게 하면서 음악에 따라서 몸이 물 흐르듯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 막춤입니다.
‘막’이라는 것은 ‘제멋대로 한다.’는 뜻이 있는 단어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막춤은 자유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기쁨과 흥을 극대화한 표현인 것입니다.

서두를 길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실 본문의 이야기를 다 한 것입니다.
본문은 바로와 모세의 2차 대면을 이야기하고 있고, 아론이 모세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조던 매터의 관점으로 보자면, 서로 대면하고 있는 모세와 바로는 모두 춤을 추고 있는 것인데 그 춤의 제목이 똑같아요.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 같이 되게 하였은

즉…”라고 하십니다.
여기서의 신은 바로 하나님인 GOD이고, ‘하나님 같이 되기’라는 제목의 춤을 추고 있는 것인데, 모세가 바로에 대해서 하나님같이 된 것이 모세의 일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전죄인 원죄의 차원에서 바로도 예외 없이 하나님 같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모세를 만나는 바로도 하나님 같이 되어서 만나고 있고, 바로를 보고 있는 모세도 하나님 같이 되어서 바로를 만나고 있습니다.
창3:4-5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바로가 하나님이 된 것은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같이 되었고, 선악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세를 바로에게 하나님같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이 두 차이가 바로 발레와 막춤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둘의 차이를 봅니다.
바로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 같이 되었다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생각과, 하나님이 사물을 바라보시는 판단의 기준과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다 통과해서 바로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바로를 권세로 눌러 이길 수 있는 더 강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는 뜻 보다는, 바로와 대면하고 있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생각이 그대로 통과되어 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조던 매터의 작품 영감에 따라서, 모세가 바로 앞에서 하는 말과 모든 행동이 막춤이라고 보는 것은,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준비된 것이 아니고 익숙한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던 사람이 80살에 지팡이 하나 가지고 대 제국인 애굽의 왕 앞으로 갑니다. 그 왕 앞에서 애굽의 하부 경제를 맡고 있던 250만의 노예를 풀어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상식에도 벗어나고 규정에도 벗어나는 막춤입니다.
물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계획하신 것이고, 430년 전에 언약하셨던 그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만, 그 계획을 통과시키는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430년 동안의 하나님의 계획이 즉흥적이고 막춤인 것은 자기가 생각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음악이 되어서 모세의 속으로 들어와서 모세를 움직이시므로 여기에는 모세가 자기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조던 매터에 의하면 이것이 춤인데, 춤의 제목은 ‘하나님 같이 되기’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그대로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로의 하나님 같이 되기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같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는 창세기 3장에 마귀의 꾐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예답게, 자기 마음에 기본동작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판단의 기준으로, 나는 통치자로 애굽의 왕이고, 애굽의 경제를 책임져야 하므로 노예는 나의 소유물이라는 가치판단의 기준으로부터 자기의 행동이 나오는데, 조던 매터에 의하면 자기의 춤사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마치 발레리나가 팔 동작 4개를 연습하고 우아하게 동작을 취할 수 있도록 익혀서, 음악이 들려오면 음악에 맞추는 것처럼, 바로의 마음속에는 발레의 기본동작 같은 가치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와서 노예를 풀어달라고 하자, 그 음악에 맞춰서 자기를 표현해내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대로 행동을 해나간다는 의미에서 하나님같이 됩니다.
바로는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모세는 타인에 대해서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담 후예들의 공통점은,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하나님처럼 됩니다. 내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기본동작인 판단기준이 있어서 상황이 주어지면 그것에 맞춰서 내 행동을 지시하는 춤을 추는 것이고, 모세는 자기 속의 판단 기준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따른 하나님의 생각이 모세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기에 모세의 춤은 막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뱀 사건으로 연장이 됩니다.
모세가 가졌던 지팡이를 아론이 받아서 던졌더니 뱀이 되었습니다.
코브라는 애굽의 왕권을 상징하는 동물로 왕관 같은 곳에 코브라의 머리가 장식되고, 이것을 보고 요술사들도 뱀을 만드는데,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의 말에 의하면 지팡이로 뱀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요술사들이 최면술 같은 것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 당시에 애굽에 널리 알려졌던 요술 중의 하나가 뱀 같은 것에 최면을 걸어서 빳빳하게 만들었다가 요술을 풀면서 땅에 던지면 다시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뱀으로 변해서 이 요술사들의 뱀을 잡아먹는 모습이 뒤에 나옵니다. 이것이 뜻하는 것은, 아론이 던진 모세의 지팡이는 장악된 뱀을 말합니다. 모세가 그것을 들고 다니며 벌써 두 번이나 뱀이 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뱀을 장악한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요술사들의 뱀은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뱀으로 창세기 3장의 이야기가 여기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장악해서 스스로 판단하게 만들고, 스스로 기본동작을 마음에 기억하고 상황이라는 음악에 맞추어서 표현하도록 하는데, 이것이 바로 마귀가 장악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조던 매터에 의하면 출근이라는 상황에 맞추다 보니, 상체를 굽히며 손을 흔들며 걸어가는 모

습을 그 아들이 춤이라고 본 것인데, 그러면 왜 그렇게 바쁘게 그 상황에 맞추어야 합니까? 돈 벌어야 하고, 먹고 살아야 한다는 가치관이 있기 때문인데, 이것이 바로 발레라는 것입니다.
돈이 좋고, 부흥이 좋고, 건강한 것이 좋고, 이 세상일들이 형통한 것이 좋고… 이런 가치관이 있을 때에 주어지는 상황이 있으면 거기에 대응하는데, 이때에 우리는 발레를 합니다.
그런데 발레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모세는 하나님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모세처럼 다른 모든 사람과 상황을 만날 때에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통과되어서,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지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상황을 판단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판단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생각과 계획과 소원을 따라서 내가 막춤을 춥니다. 내가 음악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음악으로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십니다.
바로가 모세를 보며 그랬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내가 춤을 추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음악이 나를 춤추게 하고 있는 것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모세의 막춤을 출 수 있게 합니까?
아내를 만날 때에도 막춤을 춥니다. 인간적으로 보자면 즉흥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내에 대해서 창세전부터 갖고 계셨던 생각이 지금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자식을 봐도 마찬가지이고, 직장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십자가 생활화입니다.
십자가에서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죽고 내 속의 판단도 죽습니다. 기본동작이 없고, 기본동작을 표현해 낼 상황이라는 음악이 없어지는데, 발레리나로서 살던 삶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에서 성령님이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서 교통을 이루시는 것처럼, 주님 따라 올라간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게 해주는데, 이때에 하나님 때문에 생기는 것이 있는데 사도바울이 말한 살전 5:16절의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항상 기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를 하게 되고, 그 상태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니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주어져있는 모든 상황에 감사하고 있는 그 상태는 더 이상 내가 이 상황에 덧붙일 나의 뜻과 소원이 없다는 뜻입니다. 감사 자체가 내 계획의 죽음이고 내 바람의 죽음입니다.
“감사한데 이것 좀 더해주세요”라고 한다면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므로 더 바람이 없고, 바람이 그렇게 끝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내보내시면서 드디어 막춤을 추게 됩니다.
이것이 칼로 무 자르듯이 딱 되는 것은 아니지만, 끊임없이 십자가를 통해서 생활 속에서 내

게 주어지는 모든 사실 앞에서 죽으려는 기도를 계속해서 해나갈 때에, 언제가 모세같이 수준급의 막춤의 대가들이 될 날이 오게 될 것이고, 어느 순간부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명만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모세처럼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소명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사건으로 갑작스럽게 불렸다고 할지라도 실제 그 사람의 인격이 소명자로 살아가며 모세의 막춤을 출 수 있는 단계까지 가려면 시간이 필요했고,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만난 뒤에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을 지내고 돌아와서 아테네 선교 때처럼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십자가 생활화를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하다보면 내 마음은 하늘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항상 기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과할 때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같이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인격이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같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이고, 모세가 바로 앞에서 췄던 막춤을 추는 것이고, 그 막춤을 추지 않으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바로 식의 발레리나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기본동작으로서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이 가치관을 기억하고 상황이 주어지면 그 상황이 음악인 것처럼, 그 상황이라는 음악에 맞추어서 가치판단이 지시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데, 이것이 조던 매터에 의하면 춤이라는 것이고 발레리나라는 것입니다.
발레리나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며 살아갑니까? 그 동작 하나를 우리는 한 번 보고 끝나게 되지만, 그 한 번을 위해서 피땀 어린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11: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런 기본동작을 익히기 위해 발가락이 짓무르도록 노력하며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생각과 말을 따라서 흘러가는 대로 막춤을 추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는 막춤이지만 그 춤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막 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번 발레리나로서의 기본동작에 의해서 내가 나를 통제하려는 삶을 벗어나서, 하늘에서 들리는 음악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편안하게 물 흐르듯이 막춤 추며 살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바로 앞에서 춘 모세의 막춤, 그 춤의 대가들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한 가지만을 기억합니다. 내가 2,000년 전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매 순간 기억하므로 막춤의 대가로서 모든 사람을 만나며 하나님이 같이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